

국내 소파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2013년과 2001년 주요 가구업체의 소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fa Design in Korea

- Focused on the Sofas of the Main Furniture Companies in 2013 and 2001 -

Author 류숙희 Ryu, Sookhee / 정회원, 동양미래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fa design in 2013 and understand the change of it in comparis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fa in 2001. For the sake of it, this study analyzed the styles, forms, materials, colors and composition of 220 sofas posted on 7 main furniture companies' internet homepage of Korea, and use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for the materials in 2001.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tyle of furniture was almost modern and there was much of lineal in the form of sofa, rather than curved. The percentage of using leather for main material of sofa w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with 2001. In case of minor material, there was difference in each company in percentage of using wood and metal. The use of brown color w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with 2001, and the diversification of color use was reduced. The percentage of using a single color gets increased compared with 2001, but the cases of strong contrast were more than that of weak contrast. The percentage of sofa for 3 people gets lowered compared with 2001, and the case of sofa for 4 people gets greatly increased. In case of auxiliary component, the use of couch and stool, which were almost not used in 2001, gets more increased than sofa for single, with many cases of using the corner, though small.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fa design are diversification of the sofa configuration, the tendency of high-quality sofa, and simplifica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sofa design.

Keywords 소파, 소파 디자인, 소파 디자인 특성, 가구
Sofa, Sofa Design, Characteristics of Sofa Design, Furniture

1. 서론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이 증가하면서 주로 거실에서 손님 접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실은 방문자가 그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¹⁾ 또한 거실은 가족이 모여 휴식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족의 공용공간으로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해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²⁾ 2, 3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거실과 관련된 주생활 행위로 정보 습득(신문 읽기, 뉴스 시청, 독서 등)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가족 행사, TV 시청, 영

화 및 음악 감상, 휴식 등), 커뮤니케이션(가족 대화, 가족 식사, 접대, 모임 등) 순이었다.³⁾

가구는 주거공간의 목적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⁴⁾인데, 소파는 손님을 접대하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이면서 또한 가족의 공용공간인 거실의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가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소파는 휴식을 취하거나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며 인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자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있고 특히 작업용 의자와는 디자인이나 기능, 재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면이 넓고 2명 이상이 앉을 수 있으며 등을 기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팔걸이가 있는 긴 대형 안락의자를 소파라고 한다.⁵⁾

1) 강신우·차성희a, 아파트 거실장 가구디자인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8권 제3호, 2007.8, p.168

2) 김현정·최경란, 국내 아파트 실내 공용 공간 디자인의 변화와 경향: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 연구 제6권 제3호, 2005, p.150

3) 백혜영·이연숙, 디지털 컨버전스 가구에 관한 소비자 인지 및 요구도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2004.8, p.176

4) 윤여향·김경원, 거실문화와 소파가구 디자인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1.4, p.92

거실 문화의 발달과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여 소파의 디자인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⁶⁾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김수진은 2001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당시 판매되는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⁷⁾. 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소파의 사용 주기가 약 8년임을 고려할 때⁸⁾ 2013년은 2001년을 기준으로 소파의 사용 주기가 1회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현재 판매되는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조사해 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2001년에 수행된 김수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은 어떠한가?
- 2) 2013년 우리나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은 2001년도와 어떻게 다른가?

2. 선행 연구

인미애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별 배경과 소파 디자인 양식을 살펴보았다.⁹⁾ 그러나 대상이 된 소파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외국 서적에 실린 소파였다.

우리나라 소파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진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7개 업체에서 2001년에 판매하고 있는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옷장, 서랍장, 침대, 식탁, 식탁의자의 디자인 특성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타일은 현대적인 것, 프레임은 노출되지 않은 것이 80% 이상이었으며, 소파의 구성도 3인용과 1인용으로 구성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 개의 유형에 대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¹⁰⁾ 김국선과 박성원의 연구¹¹⁾는 김수진의 연구와 유사한데, 특성 분석들을 보다 단순화시켰고 업체별 분석 자료를 표로 제시하였으나 업체별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강신우와 차성희는 소파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5개

업체의 디자인을 스타일, 표면재, 색상 등 3개 요인에 대해서 비교하였다.¹²⁾

한편 윤여항과 김경원은 소통가구로서의 소파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외국의 경우 이용자 상호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례를 소개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통가구의 개념이 반영된 소파 디자인을 찾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소파는 휴게 기능이 충실하여 일자형으로 TV를 시청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모색과 배려가 부족하였다.¹³⁾

반면 조숙경은 국내 가죽 소파에 대한 연구에서 가죽 소파의 재료와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가죽 소파 업계의 문제점으로 재료의 높은 수입 의존, 제작과정의 기술력의 부족, 디자인의 모방 등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¹⁴⁾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업체 선정

우리나라에서 소파를 제조하는 업체는 매우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모든 소파를 대상으로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가구의 디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업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제조한 가구에 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수진의 연구¹⁵⁾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거용 가구 종합생산업체를 대상으로 TV나 잡지 등 매체의 광고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 카탈로그 발행 여부와 종사자 100인 이상 여부를 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소파를 포함한 6종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김국선과 박성원의 연구¹⁶⁾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이용하여 7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소파, 침대 등 6종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100인 이상 여부를 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었다.

종사자 100인 이상의 소파 생산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¹⁷⁾에서 ‘가구 제조업’으로 업종이 분류되는 업체를 검색하여 업체별 상시 종업원 수를

5) 인미애, 현대 소파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pp.6-7
 6) 강신우·차성희b, 국내 가구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파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1, pp.1-2
 7) 김수진, 한국 현대가구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 출시중인 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1
 8) 월간 가구가이드, Beyond tomorrow, 2007, p.26
 9) 인미애, 앞의 책, pp.9-52
 10) 김수진, 앞의 책, pp.58-22
 11) 김국선·박성원, 국내 주거용 가구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5.8, pp.49-57

12) 강신우·차성희b, 앞의 책, pp.7-9
 13) 윤여항·김경원, 앞의 책, pp.91-100
 14) 조숙경, 국내 가죽소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1.6, pp.125-130
 15) 김수진, 앞의 책, pp.23-27
 16) 김국선·박성원, 앞의 책, p.51
 17) www.korcham.net

확인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다수의 업체가 업종이 ‘가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업종이 ‘가정용 가구 도매업’인 업체를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업종이 ‘가구 제조업’ 또는 ‘가정용 가구 도매업’이면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8군데였으며, 이중 단순히 해외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1개 업체를 제외한 7개의 업체의 소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6개의 업체는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 한 번 이상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1개의 업체만이 새롭게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7개 업체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가구업체

회사명	업종	상시종업원수(명)	비고*
B사	금속 가구 제조업	386	[1] [2]
C사	가정용 가구 도매업	232	[2]
D사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105	
E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208	[1]
H사	가정용 가구 도매업	1536	[1] [2]
J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179	[1]
L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480	[1] [2]

* [1] 김수진(2001) 연구의 분석 대상 업체, [2] 김국선과 박성원(2005) 연구의 분석 대상 업체

3.2. 분석틀 개발

본 연구에서는 소파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김수진¹⁸⁾ 및 김국선과 박성원¹⁹⁾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표 2>와 같은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스타일은 크게 modern, classic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초기 분석 과정에서는 이들 이외에 semi-classic을 포함시켰으나 classic과 semi-classic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classic에 semi-classic을 포함하였다. 형태는 직선적, 곡선적, 직선적과 곡선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 직선적+곡선적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소파의 구조상 곡선만으로 소파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김수진의 연구 결과에서도 곡선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²⁰⁾ 직선적과 직선적+곡선적,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소파의 재료는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재료는 소파의 좌석이나 등받이 등을 감싸고 있는 재료를 의미하며, 가죽, 천,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부재료는 프레임, 팔걸이, 다리 등의 재료를 의미하며, 목재, 금속, 기타로 구분하였다. 단, 부재료의 경우는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주재료로 싸여있어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는 ‘사용 안 함’으로 구분하였다.

색상은 주재료의 대표색을 의미하며, 아이보리, 연한 갈색, 중간 갈색, 진한 갈색, 회색, 검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고, 배색은 단색, 강한 대비, 약한 대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소파의 구성은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1인용을 제외한 대표 구성품에 따라 2인용, 3인용, 4인용(2인용 2개의 구성 포함), 기타로 구분하고(구성1), 그 외에 1인용 소파가 있는지, 또는 스툴, 카우치, 코너 등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구성2). 예를 들어, 전체 소파의 구성이 3인용 소파 1개와 1인용 소파 1개, 스툴 1개로 구성된 경우, 구성1은 3인용으로 분류하고, 구성2는 1인용 및 스툴 포함으로 분류한다.

등받이 모양은 구성1의 등받이가 수직 방향으로 몇 개로 나누어졌는가에 따라 일체형, 2등분, 3등분, 4등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 등받이 장식 여부, 프레임의 노출 여부, 노출된 프레임의 장식 여부 등을 분석하였고, 소파의 모양을 베드나 카우치의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2> 소파 분석틀

항목	구분
스타일	modern, classic
형태	직선적, 직선적+곡선적
주재료	가죽, 천, 기타
부재료	목재, 금속, 기타, 사용 안 함
색상	아이보리, 갈색(약한 톤, 중간 톤, 진한 톤), 회색, 검정, 기타
배색	단색, 강한 대비, 약한 대비
구성1	2인용, 3인용, 4인용(2인용+2인용), 기타
구성2	1인용/스툴/카우치/코너 유무
등받이 모양	일체형, 2등분, 3등분, 4등분 이상
등받이 장식	장식 유무
프레임 노출	노출 여부
프레임 장식	장식 유무
추가 기능	추가 기능 유무

3.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파의 실물을 직접 보면서 소파의 디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선정된 7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²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소파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파이며, 각 업체별

18) 김수진, 앞의 책, pp.30, 36

19) 김국선·박성원, 앞의 책, p.52

20) 김수진, 앞의 책, p.59

21) www.bif.co.kr, www.casamiashop.com, www.dauning.com, www.emons.co.kr, interior.hanssem.com, www.jangin.com, www.livart.co.kr

로 분석된 소파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소파의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소파 수	25 11.4%	25 11.4%	43 19.5%	54 24.5%	27 21.3%	25 11.4%	21 9.5%	220 100%

업체에 따라 분석한 소파의 수는 최대 54개에서 최소 21개이며, 전체 분석 대상인 소파 수는 220개이다.

스툴 하나를 추가하거나 배제하는 것과 같이 실제 소파를 구매할 때에는 소파의 구성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실내 건축 전공의 박사학위가 있거나 박사학위 과정 중인 3명의 전문가에 의해 진행하였다. 먼저 7개의 업체별로 5개씩 총 35개의 소파에 대해 각자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함으로 분석틀을 확인하고 분석에 대한 기준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소파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개별 분석 결과 세 명의 의견이 모두 다른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한 명의 의견이 다른 두 명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7건이었다. 개별 분석에 따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 명이 다시 논의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얻었다.

업체별 소파의 디자인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체별 유형에 따른 사례 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현재와 2001년도 소파의 디자인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와 선행 연구인 김수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고, 22) 두 연구에서 공통으로 분석한 특성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4. 분석

4.1. 2013년 소파의 특성

<그림 1>은 소파의 classic 및 modern 스타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소파의 스타일에 따른 사례 수는 <표 4>와 같다. 전체의 90% 이상인 206건이 modern 스타일이었으며, classic 스타일은 6.4%인 14건이었다.

22) 카이제곱 검증은 자유도가 1보다 큰 경우 전체 사례수가 30보다 크고 5 미만의 기대빈도의 셀이 전체 셀의 20%보다 적으며, 모든 셀에 1.00 이상의 기대빈도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기대빈도가 5 미만의 셀이 전체 셀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SPSS 10.0/11.0, 인간과복지, 서울, 2004, p.250)



a) classic의 예(E사)

b) classic의 예(J사)



c) modern의 예(C사)



d) modern의 예(L사)

<그림 1> 소파 스타일의 유형별 사례의 예

<표 4> 2013년 소파의 스타일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classic	0 0.0%	0 0.0%	0 0.0%	4 7.4%	0 0.0%	3 12.0%	0 0.0%	7 3.2%
modern	25 100%	25 100%	43 100%	50 92.6%	27 100%	22 88.0%	21 100%	213 96.8%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업체별로 살펴보면, B사, C사, D사, H사, L사 등 5개 업체는 100% modern 스타일만 제작하고 있으며 E사와 J사도 modern 스타일의 비율이 각각 92.6%와 88.0%로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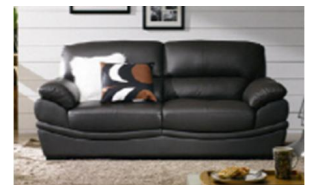
a) 직선적의 예(D사)



b) 직선적의 예(H사)



c) 직선적+곡선적의 예(J사)



d) 직선적+곡선적의 예(L사)

<그림 2> 소파 형태의 유형별 사례의 예

<그림 2>는 소파 형태의 유형별 사례의 예를, <표 5>는 소파의 형태에 따른 유형별 사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직선적 형태를 갖는 소파는 전체의 67.3%인 148건이었고, 곡선적인 형태를 포함한 경우(직선적+곡선적)는 32.7%인 72건이었다.

<표 5> 2013년 소파의 형태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카이제곱
직선적	20 80.0%	10 40.0%	42 97.7%	41 75.9%	25 92.6%	4 16.0%	6 28.6%	148 67.3%	82.173***
직선적+곡선적	5 20.0%	15 60.0%	1 2.3%	13 24.1%	2 7.4%	21 84.0%	15 71.4%	72 32.7%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p<0.001.

업체별로 살펴보면, D사와 H사는 직선적 형태가 90% 이상이었으며, B사와 E사는 직선적 형태가 각각 75~80% 정도로 높은 반면, C사는 직선적+곡선적의 비율이 60.0%로 직선적보다 높았고, J사와 L사는 직선적+곡선적의 비율이 각각 84.0%와 71.4%로 매우 높았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형태에 따른 사례 수는 업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파의 외형을 감싸는 주재료에 따른 사례 수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95% 정도인 208건은 가죽을, 나머지 12건(5.5%)은 천을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D사, E사, J사는 모든 소파의 주재료로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도 가죽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8,90%대로 높았다.

<표 6> 2013년 소파의 주재료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천	1 4.0%	4 16.0%	0 0.0%	0 0.0%	5 18.5%	0 0.0%	2 9.5%	12 5.5%
가죽	24 96.0%	21 84.0%	43 100%	54 100%	22 81.5%	25 100%	19 90.5%	208 94.5%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주재료로 감싸여지지 않고 노출된 프레임, 팔걸이, 다리의 재질을 의미하는 부재료의 유형별 사례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a) 목재의 예(B사) b) 금속의 예(E사) c) 부재료 미사용의 예(H사)

<그림 3> 소파 부재료의 유형별 사례의 예

<표 7>은 부재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64.5%인 142건이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4.1%인 53건은 목재를, 11.4%인 25건은 금속을 부재료로 사용하였다. 즉, 목재가 금속에 비해 부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2배 이상이었다.

<표 7> 2013년 소파의 부재료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목재	4 16.0%	23 92.0%	4 9.3%	6 11.1%	7 25.9%	5 20.0%	4 19.0%	53 24.1%
금속	0 0.0%	0 0.0%	9 20.9%	13 24.1%	3 11.1%	0 0.0%	0 0.0%	25 11.4%
사용안함	21 84.0%	2 8.0%	30 69.8%	35 64.8%	17 63.0%	20 80.0%	17 81.0%	142 64.5%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C사의 경우는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10% 미만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부재료를 사용한 23건은 모두 목재를 부재료로 사용하였고 금속을 부재료로 사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D사와 E사는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60%대이며, 목재의 사용 비율이 10%대인 것에 비해 금속의 사용 비율이 20%대로 더 높았다. B사, J사, L사는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80%대로 높았으며, 금속은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목재를 부재료로 사용한 비율이 16~20% 정도였다. 나머지 H사의 경우 부재료의 사용 비율이 7개사의 평균에 가까웠다. 이와 같이 7개사의 평균에 가까운 부재료 사용 비율을 보인 업체는 H사 한 곳뿐이며, 대체로 부재료 사용에 있어 업체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소파 주재료의 색깔을 의미하는 색상에 따른 사례 수는 <표 8>과 같다

<표 8> 2013년 소파의 색상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아이보리색	2 8.0%	3 12.0%	5 11.6%	11 20.4%	0 0.0%	4 16.0%	3 14.3%	28 12.7%
베이지색	0 0.0%	0 0.0%	0 0.0%	0 0.0%	6 22.2%	2 8.0%	0 0.0%	8 3.6%
연한 갈색	2 8.0%	6 24.0%	5 11.6%	7 13.0%	1 3.7%	0 0.0%	1 4.8%	22 10.0%
중간 갈색	2 8.0%	3 12.0%	4 9.3%	4 7.4%	1 3.7%	2 8.0%	1 4.8%	17 7.7%
진한 갈색	16 64.0%	9 36.0%	19 44.2%	25 46.3%	19 70.4%	11 44.0%	12 57.1%	111 50.5%
회색	2 8.0%	3 12.0%	2 4.7%	3 5.6%	0 0.0%	0 0.0%	2 9.5%	12 5.5%
검정	1 4.0%	1 4.0%	7 16.3%	1 1.9%	0 0.0%	4 16.0%	2 9.5%	16 7.3%
기타	0 0.0%	0 0.0%	1 2.3%	3 5.6%	0 0.0%	2 8.0%	0 0.0%	6 2.7%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전체적으로 갈색 계열의 색이 70%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진한 갈색을 사용한 경우가 50% 이상인 111건이었다. 다음으로 아이보리색의 사용이 28건(12.7%)으로 많았으며, 검정, 회색, 베이지색이 그 뒤를 이었으나 그 사용 비율은 7.3~3.6%로 높지 않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가 진한 갈색을 약 35~70%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큰 비

울을 차지하는 색상은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 C사는 연한 갈색을, D사는 검정색을, E사는 아이보리색을, H사는 베이지색을, J사는 아이보리색과 검정색을, L사는 아이보리색을 각각 15~25% 정도로 사용하였다.

배색의 경우 전체적으로 90.0%인 198건은 한 색만 사용하였으며, 강한 대비는 17건(7.7%), 약한 대비는 5건(2.3%)이었다.<표 9> 참조)

<표 9> 2013년 소파의 배색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카이제곱
단색	23 92.0%	24 96.0%	28 65.1%	53 98.1%	25 92.6%	25 100%	20 95.2%	198 90.0%	
강한 대비	1 4.0%	1 4.0%	14 32.6%	0 0.0%	0 0.0%	0 0.0%	1 4.8%	17 7.7%	
약한 대비	1 4.0%	0 0.0%	1 2.3%	1 1.9%	2 7.4%	0 0.0%	0 0.0%	5 2.3%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D사를 제외한 6개 업체의 경우 단색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고 강한 대비와 약한 대비의 사용이 각각 5% 미만으로 유사한 반면,²³⁾ D사는 단색의 사용 비율이 약 65%로 다른 업체에 비해 낮고 강한 대비의 사용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표 10>은 구성1, 즉 소파의 구성에 있어 1인용을 제외한 대표 구성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2013년 소파의 구성1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카이제곱 ²⁴⁾
3인용	16 64.0%	22 88.0%	31 72.1%	37 68.5%	24 88.9%	17 68.0%	19 90.5%	166 75.5%	
4인용	9 36.0%	3 12.0%	10 23.3%	17 31.5%	3 11.1%	8 32.0%	2 9.5%	52 23.6%	
기타	0 0.0%	0 0.0%	2 4.7%	0 0.0%	0 0.0%	0 0.0%	0 0.0%	2 0.9%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3인용 소파가 포함된 구성이 전체의 75.5%인 166건인 반면, 2인용 소파 2개를 포함하여 4인용 소파가 포함된 구성은 23.6%인 52건이었다. 반면 2인용 소파 1개가 포함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7개 업체의 3인용 소파의 비율은 60~80%대로 4인용 소파보다는 3인용 소파로 구성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업체별로 구성1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은 구성1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인 구성2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인용, 스텔, 카우치, 코너 등은 하나의 소파 구성에 대해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이며, 카이제곱 검증은 구성2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1인용, 스텔, 카우치, 코너 각각의

23) 단, H사의 경우 약한 배색의 사용이 7.4%로 다소 높음
24) 카이제곱 검증은 '기타' 2건을 제외하고 시행함.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4번 수행한 것을 한 개의 표에 나타낸 것이다.

<표 11> 2013년 소파의 구성2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카이제곱
1인용	5 20.0%	1 4.0%	10 23.3%	16 29.6%	9 33.3%	10 40.0%	10 47.6%	61 27.7%	14.744 [*]
스텔	13 52.0%	1 4.0%	8 18.6%	27 50.0%	4 14.8%	14 56.0%	11 52.4%	78 35.5%	36.393 ^{***}
카우치	6 24.0%	6 24.0%	23 53.5%	11 20.4%	13 48.1%	8 32.0%	5 23.8%	72 32.7%	17.574 ^{**}
코너	3 12.0%	0 0.0%	2 4.7%	3 5.6%	0 0.0%	1 4.0%	0 0.0%	9 4.1%	7.430
없음	4 16.0%	18 72.0%	14 32.6%	9 16.7%	7 25.9%	2 8.0%	2 9.5%	56 25.5%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p<0.05, **p<0.01, ***p<0.001.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스텔로 전체의 35.5%의 소파에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카우치는 32.7%, 1인용 소파는 27.7%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코너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하였다. 구성1 이외에 다른 구성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25.5%인 56건이었다.

<그림 4>는 1인용 소파, 스텔, 카우치, 코너가 각각 포함된 사례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소파 구성2의 유형별 사례의 예

<표 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1인용, 스텔, 카우치, 코너 중 2개 이상을 포함한 구성은 모두 49건(22.3%)이었으며, 특히 1인용과 카우치, 1인용과 스텔을 한 개씩 포함한 경우가 각각 22건(10.0%)과 18건(8.2%)으로 많았다.

업체별로 구성2의 구성에 차이를 보였다. 1인용 소파의 경우 L사와 J사는 40% 이상이 1인용 소파를 포함하는 데 비해, C사는 1인용 소파를 포함한 경우가 1건(4.0%)뿐이었다. 스텔의 경우도 B사, E사, J사, L사는 50% 이상이 스텔을 포함하고 있으나 C사는 스텔을 포함한 경우가 1건(4.0%)뿐이었으며, D사와 H사도 스텔을

포함한 비율이 10%대로 낮았다. 1인용 소파와 스톨의 업체별 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카우치의 경우는 업체별로 포함 비율이 20~50%대였는데, 이러한 업체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코너가 포함된 경우는 업체별로 0~3건 정도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표 12>는 구성1의 등받이의 수직 구분 개수를 의미하는 등받이 모양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2등분과 3등분이 각각 35% 정도로 많았으며, 4등분 이상은 22.3%였다. 수직 구분 없이 등받이 전체가 일체형인 경우는 모두 15건(6.8%)으로 많지 않았다. 업체별로 등받이 모양의 구성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2013년 소파의 등받이 모양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일체형	0 0.0%	3 12.0%	5 11.6%	4 7.4%	0 0.0%	1 4.0%	2 9.5%	15 6.8%
2등분	11 44.0%	9 36.0%	11 25.6%	18 33.3%	9 33.3%	14 56.0%	5 23.8%	77 35.0%
3등분	10 40.0%	8 32.0%	17 39.5%	15 27.8%	10 37.0%	7 28.0%	12 57.1%	79 35.9%
4등분 이상	4 16.0%	5 20.0%	10 23.3%	17 31.5%	8 29.6%	3 12.0%	2 9.5%	49 22.3%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표 13>은 등받이 장식 여부, 프레임 노출 여부, 노출된 프레임의 장식 여부, 추가 기능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 2013년 소파의 등받이 장식, 프레임 노출, 프레임 장식, 추가 기능에 따른 사례 수

	B사	C사	D사	E사	H사	J사	L사	계	카이 제곱 ²⁵⁾
등받이 장식	25 100%	17 68.0%	36 83.7%	54 100%	15 55.6%	25 100%	19 90.5%	191 86.8%	47.191***
프레임 노출	2 8.0%	0 0.0%	6 14.0%	2 3.7%	0 0.0%	4 16.0%	3 14.3%	17 7.7%	11.588
프레임 장식	0 0.0%	-	0 0.0%	2 100%	-	4 100%	0 0.0%	8 35.3%	-
추가 기능	2 8.0%	1 4.0%	1 2.3%	11 20.4%	1 3.7%	0 0.0%	4 19.0%	20 9.1%	17.482**
전체	25 100%	25 100%	43 100%	54 100%	27 100%	25 100%	21 100%	220 100%	

p<0.01, *p<0.001.

전체의 86.8%의 소파는 등받이 장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프레임이 노출된 경우는 7.7%로 대부분은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았다. 프레임이 노출된 17건 중 35.3%인 8건에 장식이 있었다. 소파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는 모두 20건으로 전체의 9.1%에 해당하였다.

B사, E사, J사의 경우 모든 소파에 등받이 장식이 있었으며, D사와 L사의 경우도 80~90%대의 소파에 등받이

장식이 있었다. 반면, C사와 H사는 50~60%대의 소파에만 등받이 장식이 있어 다른 업체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업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업체별 프레임의 노출 비율은 0~16.0%로 높지 않았으며, 업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사와 L사의 경우는 20% 정도의 소파가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C사, D사, H사, J사는 1건 이하의 소파만이 추가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업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4.2.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특성 비교

2013년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 소파의 특성을 2001년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자료는 김수진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²⁶⁾

<표 14>는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스타일을 비교한 것이다. 김수진의 연구에서 '절충적'과 '서양 전통적'으로 구분한 것을 여기에서는 'classic'으로 합쳐서 나타내었다. 2001년에는 classic의 비율이 17.0%였으나, 2013년에는 3.2%로 그 비율이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4>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스타일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classic	7 3.2%	18 17.0%	25 7.7%	9.109**
modern	213 96.8%	88 83.0%	301 92.3%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1.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2001년에 비해 2013년의 경우 직선적 형태의 비율이 8%p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5>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형태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직선적	148 67.3%	63 59.4%	211 64.7%	1.925
직선적 + 곡선적	72 32.7%	43 40.6%	115 35.3%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표 16>은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주재료를 비교한 것이다. 2001년에는 천의 사용 비율이 30%대인 반면, 2013년에는 5.5%로 떨어졌으며, 가죽의 사용 비율이 94.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5) 카이제곱 검증은 등받이 장식 여부, 프레임 노출 여부, 추가 기능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한 것임.

26) 김수진, 앞의 책, pp.58-62

<표 16>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주재료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천	12 5.5%	39 36.8%	51 15.6%	53.233***
가죽	208 94.5%	67 63.2%	275 84.4%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표 17>은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부재료를 비교한 것이다. 김수진의 연구에서는 부재료 이외에 기타 재료란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현재 그 구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며 본 연구의 분석들에서는 주재료 이외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는 모두 부재료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들에 따라 사용 빈도가 더 많은 기타재료를 부재료의 항목으로 사용하였다.²⁷⁾

<표 17>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부재료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목재	53 24.1%	61 57.5%	114 35.0%	57.580***
금속	25 11.4%	24 22.6%	49 15.0%	
사용안함	142 64.5%	21 19.8%	163 50.0%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2001년에는 부재료로 목재와 금속을 사용한 비율이 각각 60% 정도와 20% 정도였고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20% 정도였다. 2013년에는 목재와 금속을 부재료로 사용한 비율이 각각 20%대와 10%대로 낮아졌고,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5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만일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목재와 금속의 사용 비율만 비교하면, 2013년 소파의 부재료는 2001년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갈색의 비율이 25.5%에서 68.2%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초록, 주황, 노랑 색상의 사용이 각각 5% 이상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노랑 1건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색상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색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7)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에서 주재료 이외에 외부에 노출되어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부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보았으며 사진에서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는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01년의 자료에서의 부재료(기타 재료) 사용 기준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음을 밝힌다.

<표 18>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색상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갈색	150 68.2%	27 25.5%	177 54.3%	90.315***
회색	12 5.5%	7 6.6%	19 5.8%	
검정	16 7.3%	3 2.8%	19 5.8%	
초록	0 0.0%	8 7.5%	8 2.5%	
주황	0 0.0%	6 5.7%	6 1.8%	
노랑	1 0.5%	12 11.3%	12 3.7%	
기타	13 5.9%	15 14.2%	29 8.9%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2013년 소파와 2001년 소파의 배색을 비교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2001년에 비해 2013년의 단색 사용 비율이 10%p 정도 증가하였으며, 강한 대비와 약한 대비의 사용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배색 사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9>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배색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단색	198 90.0%	86 81.1%	284 87.1%	7.871*
강한 대비	17 7.7%	11 10.4%	28 8.6%	
약한 대비	5 2.3%	9 8.5%	14 4.3%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5.

<표 20>은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구성1을 비교한 것으로, 3인용 소파가 2013년과 2001년 모두 70~80%대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2001년에 전혀 조사되지 않은 4인용 소파가 2013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는 2001년에는 3인용 및 2인용 소파의 구성과 2인용 소파가, 2013년에는 5인용 이상인 소파가 해당된다.

<표 20>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구성1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3인용	166 75.5%	94 88.7%	260 79.8%	44.680***
4인용	52 23.6%	0 0.0%	52 16.0%	
기타	2 0.9%	12 11.3%	14 4.3%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표 21>은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구성에서 1인용 소파, 스텐, 카우치, 코너가 포함된 사례 수를 나타낸 것

이다. 2001년에는 스텔이 구성에 포함된 경우가 2건이며 카우치와 코너가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1인용 소파를 제외하면 소파의 구성이 매우 단순하였다. 반면, 2013년에는 소파의 구성으로 스텔과 카우치를 포함한 경우가 각각 30%대로 높았으며, 코너가 포함된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 그 구성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에는 대표 구성품(구성1) 이외의 다른 구성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5% 정도로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구성2 비교

	2013년	2001년	계
1인용	61 27.7%	96 90.6%	157 48.2%
스텔	78 35.5%	2 1.9%	80 24.5%
카우치	72 32.7%	0 0.0%	72 22.1%
코너	9 4.1%	0 0.0%	9 2.8%
없음	56 25.5%	5 4.9%	61 18.7%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소파의 구성 중 1인용 소파의 포함 여부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2001년에는 소파의 구성에 있어 90% 이상의 경우에 1인용 소파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에는 그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구성1인 대표 구성품 이외에 다른 구성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있으나 1인용 소파를 대신하여 카우치, 특히 스텔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01년의 1인용 소파 포함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2>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1인용 소파 포함 여부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1인용 포함	61 27.7%	96 90.6%	157 48.2%	113.140***
1인용 미포함	159 72.3%	10 9.4%	169 51.8%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등받이 모양을 비교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2001년에 비해 2013년에는 일체형의 비율이 30%p 정도나 줄어들었고 대신 2001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4등분 이상의 구분을 보이는 사례가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3년의 3등분 구분의 비율은 2001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2등분 구분의 비율은 15%p 정도 증가하였다.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등받이 모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3>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등받이 모양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일체형	15 6.8%	40 37.7%	55 16.9%	69.514***
2등분	77 35.0%	22 20.8%	99 30.4%	
3등분	79 35.9%	44 41.5%	123 37.7%	
4등분 이상	49 22.3%	0 0.0%	49 15.0%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p<0.001.

<표 24>는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프레임 노출 여부와 노출된 프레임의 장식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2013년과 2001년 소파 중 프레임이 노출된 비율은 각각 7.7%와 14.2%로 모두 높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프레임이 노출된 경우 2001년에는 80% 정도가 프레임에 장식이 있는 반면 2013년에는 50% 이하로 높지 않았다.

<표 24> 2013년과 2001년 소파의 프레임 노출 및 장식 여부 비교

	2013년	2001년	계	카이제곱
프레임 노출	17 7.7%	15 14.2%	32 9.8%	3.334
프레임 미노출	203 92.3%	91 85.8%	294 90.2%	
프레임 장식	8 47.1%	12 80.0%	20 62.5%	-
전체	220 100%	103 100%	326 1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현재의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2001년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7개 주요 가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220개 소파의 스타일, 형태, 재료, 색상, 구성 등을 분석하였고 2001년 자료는 선행연구(김수진, 2001)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 소파의 디자인을 2001년의 소파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2013년 판매되는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 소파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파 구성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모든 업체의 대표 구성품은 4인용 소파보다 3인용 소파가 많았다. 그러나 2001년에 비해 3인용 소파의 비율이 낮아졌고 2001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4인용의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성을 보였다. 또한 2001년에 거의 사용되지 않던 카우치와 스텔의 사용이 1인용 소파보다 많아졌으며, 적지만 코너를 사용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품의 사

용은 업체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소파의 고급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주재료로 천의 사용 비율이 줄어들고 가죽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진한 갈색과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색상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4인용 소파, 카우치, 코너의 사용이 늘어나 규모에 있어서도 대형화 경향을 보이며, 형태 변형 등의 기능을 추가한 소파가 나타났다.

셋째, 소파 디자인의 단순화를 들 수 있다. 다소 복잡한 형태를 갖는 classic 스타일과 곡선의 사용이 줄어들고, 대신 modern 스타일과 직선의 사용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으며, 프레임, 팔걸이, 다리 등의 노출이 줄고 이에 따라 부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또한 노출된 부위에 대한 장식의 사용도 줄어들었다. 특히, 큰 공간이 필요한 팔걸이가 있는 1인용 소파를 대신하여 단순한 스톨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단, 소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파 등받이의 구분은 더 많아졌다.

넷째, 소파 디자인의 집중화를 들 수 있다. 소파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화를 보인 반면, 재료나 색상, 스타일, 형태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 가지 유형에 대한 집중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가구업체의 소파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급화 경향에 따라 젊은이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코너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휴식 위주의 기능에 치우쳐 가정의 공용공간인 거실의 소파 가구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형화된 주요 가구업체의 소파뿐 아니라 신혼부부 및 젊은 사람의 사용이 많은 중소형 업체의 소파에 대한 특성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파의 디자인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기호 및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및 선호도를 반영한 소파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SPSS 10.0/11.0, 인간과복지, 서울, 2004
2. 월간 가구가이드, Beyond tomorrow, 2007
3. 김수진, 한국 현대가구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 출시중인 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1
4. 인미애, 현대 소파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5. 강신우·차성희, 아파트 거실장 가구디자인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8권 제3호, 2007.8
6. 강신우·차성희, 국내 가구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파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1
7. 김국선·박성원, 국내 주거용 가구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5.8
8. 김현정·최경란, 국내 아파트 실내 공용 공간 디자인의 변화와

경향: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6권 3호, 2005

9. 백혜영·이연숙, 디지털 컨버전스 가구에 관한 소비자 인지 및 요구도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2004.8
10. 윤여향·김경원, 거실문화와 소파가구 디자인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1.4
11. 조숙경, 국내 가죽소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1.6
12. <http://interior.hanssem.com>
13. <http://www.bif.co.kr>
14. <http://www.casamiashop.com>
15. <http://www.dauning.com>
16. <http://www.emons.co.kr>
17. <http://www.korcham.net>
18. <http://www.jangin.com>
19. <http://www.livart.co.kr>

[논문접수 : 2013. 10. 31]

[1차 심사 : 2013. 11. 21]

[2차 심사 : 2013. 12. 06]

[게재확정 : 2013. 12. 13]